“내가 반대해온 기초연금안으로 어떻게 국민 설득하나” 진 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내 말 말 말

올 한해 정치권에서는 ‘막말’ 논란으로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 등으로 불붙은 여야의 신경전이 생소하기만 한 ‘귀태’(鬼胎) 발언으로 불붙으면서 ‘막말’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박근혜 대통령, 3월19일 7대 종단지도자들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박근혜 대통령, 5월15일 언론사 정치부장단 초청 만찬에서 ‘윤창중 사건’을 거론하며.

◇“종북세력의 숙주노력을 하지 않았나”=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9월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왔다고 비판하며.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아래 논밭은 타들어가고 있다”=김한길 민주당 대표, 6월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을(乙)’을 위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라는 책에 귀태(鬼胎)라는 표현이 있다.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 7월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 중.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문재인 민주당 의원, 10월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민주당 양승조 의원. 12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며.

◇“소쩍새가 한 번 운다고 해서 국화꽃이 피는 것은 아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5월27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3월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공격 위협’과 관련해 답변하면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현오석 부총리, 11월14일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며.

◇“재벌 3~4세들 기업가 정신 이완됐다”=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5월1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를 비판하며.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무색하다”=김덕중 국세청장, 8월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 축사에서 탈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미래를 창조하라고 했더니 MOU만 창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MOU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읽죠? ‘뭐유’라고 해요. 충청도 말로 한마디로 ‘뭐유부’가 돼버렸어요.”=전병헌 민주당 의원, 11월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창조경제 정책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내가 반대해온 기초연금안으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나. 이건 양심의 문제”=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9월29일 사퇴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2분기에 1%대 경제성장을 했다고 좋아하는 공직자는 사퇴해야 한다”=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7월25일 전경련 제주하계포럼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포스코 문화 45년간 갑(甲) 노릇만 해오다 언젠가 분명히 터질 일이었다”=포스코 A임원, 4월27일 그룹 워크숍에서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 임원이 항공기 승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이른바 ‘라면 상무’사건을 언급하며.

◇“내년엔 정부가 기업에 읍소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8월7일 인천 소재 중소기업을 찾아 절전 동참을 당부하며.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 검사장님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갖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그리고 우리 국감 앞두고 수사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 하시길래 저는 이게 ‘아!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 끌고나가긴 불가능하다는 생각했다”=윤석렬 여주지청장, 10월21일 법사위의 서울고검 국감에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조영곤 당시 지검장의 재가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묻자.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김윤상 전 대검찰청 감찰1과장, 9월14일 혼외 아들 논란에 휘말린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자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사의를 표명하며.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 9월10일 검찰에서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 계획을 발표하며.

◇“수사 내내 서울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4월19일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에 대한 상부의 개입 사실을 밝히며.

◇“격려 전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8월16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건 게 사실이냐고 묻자.

◇ “일단 씻고 싶다. 이렇게 웃으면서 내려와 기쁘다”=여민희 재능교육 노조원, 해직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202일간 종탑 농성을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 “태권도를 했다고 해서 허벅지를 눌러본 것일 뿐 추행한 것은 아니다”=가수 고영욱, 4월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자기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부인하며.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에요. 그래놓고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르고 선거에 이용하고 한 겁니다”=박창신 천주교 전주교구 원로신부, 11월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하면서 한 강론에서.

◇“팩트는 맞지만 진실은 아니다”=김종양 경남지방경찰청장, 10월30일 경남지방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에 대한 경찰의 폭언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을 묻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교학사 교과서는 오가잡탕”=지수걸 공주대 역사교육과 학과장, 10월2일 한국역사연구회 홈페이지에 ‘교학사 고등학교 교과서 바로 보기’란 글을 올려 이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지난 9월 미납추징금 대한 자진 납부 계획을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을 방문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진영

권은희

박창신

고영욱

미래 창조하라고 했더니 MOU만 창조 전병헌

태권도 했다고 해서 허벅지 눌러본 것 고영욱

격려 전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김용판

지구촌 말 말 말

◇“난 반역자도, 영웅도 아니고 일개 미국인이다”=미국 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미국 국가안보국의 광범위한 도·감청 의혹을 폭로하고 난 뒤 6월12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호랑이에서 파리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꺼번에 척결해야 한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1월22일 공산당 최고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상시적이고 전방위적인 부패 척결 의지를 강조하며.

◇“힉스입자 못 찾았다면 물리학 더 재밌었을 텐데”=영국 이론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11월12일 런던과학박물관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 ‘힉스 입자’를 예견한 피터 힉스 에든버러대 명예교수와 프랑수아 앙글레르 브뤼셀 자유대 명예교수의 노벨물리학상 수상에 대해 농담을 섞어 언급하며.

◇“지중해를 거대한 야외 공동묘지로 남겨 둬서는 안 된다”=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 10월7일 300명 이상이 숨진 난민선 침몰사고에 대해 유럽이 대처해야 한다면서.

◇“중국 문 앞에서 말썽나는 것 허용 안 해”=왕이 중국 외교부장, 11월19일 열린 ‘중국 특색사회주의와 중국 꿈 선전교육 시리즈 보고회’에서 최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을 밝히며.

◇“나를 ‘우익 군국주의자’라고 부르고 싶다면 부디 그렇게 불러달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9월25일 미국 뉴욕 방문 중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의 초청으로 한 강연에서 집단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무런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프란치스코 교황, 지난 3월 즉위 후 행한 연설 등을 모아 놓은 ‘사제로서의 훈계’라는 문서에서 자본주의 폐해를 경고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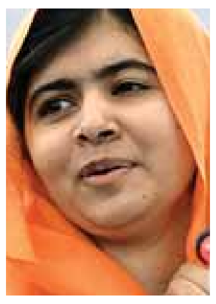
◇“수천권의 책을 읽고 지식으로 스스로 힘을 키우겠다. 펜과 책은 테러리즘을 물리칠 무기”=파키스탄에서 여성 교육권을 주장하다 탈레반의 총격을 받은 뒤 가까스로 살아난 10대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 9월2일 영국 버밍엄에 문을 연 유럽 최대 공공 도서관 ‘버밍엄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트위터는 불공정하고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광대들의 집합 장소다”=셰이크 압둘아지즈 알셰이크 사우디아라비아 최고 종교지도자, 3월 종교학자 대상 연설에서.

◇“우리(마이크로소프트)는 세상을 바꿔 놓았고 기록에 남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스티브 발머 마이크로소프트 CEO, 퇴임 전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연례 주주총회를 앞두고 9월27일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회사의 밝은 미래를 강조하며.

◇“재임 기간 겪은 성차별 대우에 ‘살인적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지만 내 정신건강을 위해 괘념치 않기로 했다”=줄리아 길라드 전 호주 총리, 9월30일 시드니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공개 좌담회에서 호주 여성운동가 앤 서머스로부터 성차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프란치스코 교황



말랄라 유사프자이

에드워드 스노든

아무런 규제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 교황

펜과 책은 테러리즘 물리칠 무기이다 유사프자이